2022년 2월 13일 (녹) 연중 제 6주일 No. 1300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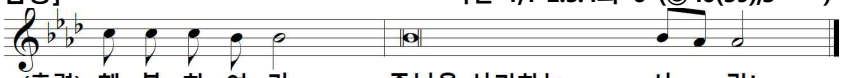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예레 17,5-8

[화답송] ..... 시편 1,1-2.3.4와 6 (◎40(39),5ㄱㄴ)



○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 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

[제 2 독서] ..... 1 코린 15,12.16-20

[복음환호송] ..... 루카 6,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6,17.20-26

[성가안내]

- 입당성가 [434] 산상 교훈
- 봉헌성가 [332] 봉헌
- 성체성가 [163] 생명의 성체여
- 파견성가 [437]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이 종환 토마스 아퀴나스	김 영빈 루치아
전 마지 마가렛	가족
이 영우, 이 태묘	이 상홍 스테파노
이 정진 안토니오	유 경자 데레사
이 정진 안토니오	민 완준
김 금옥	황 경숙 수산나
김 금옥	울뜨레아
박 성길, 여 성순	박 정자 로사
Danny Nairn (대니 네런)	김 유진 가족
이 종환 토마스 아퀴나스, 이 재호 클레멘스	연 령회
전 마지 마가렛, 이 정진 안토니오	연 령회
홍 봉운 바오로	연 령회

생미사	봉헌
김 보현 엘리사벳	노 희정 데레사
김 정숙	민 덕미 안젤라
민 정신 아폴로니아	이 경자 율리안나
이 영애 레지나 가족등 위하여	유 혜상 마르첼리나
김 지현 스콜라스티카	부모
진 윤자 스콜라스티카	익명
이 영애 레지나, 이 조앤 그레이스	김 현숙 그레이스
이 영애 레지나 가족	김 미화 마리 클레어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2월13일	이영노 율리안나	정은철 프란치스코	장혜윤 크리스티나	장혜윤 크리스티나	유정옥 유스티나	조소연 마르티나	김승현 마리아
2월20일	이지훈 아녜스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김승연 안나	김승연 안나	김종선 비비안나	김진수 대건 안드레아	정동주 유스토

● 홍 봉운 바오로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 1월 11일 홍 봉운 바오로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 공동체 설립 25주년에 첨부할 '신앙 체험담' 모집.
각 단체별로 2월 27일까지 제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동체 설립 25주년 추진 위원회의 있습니다.
- 2022. 2. 20 주일 미사 후
- 2층 교리반

● 풍물패 '신명' 연습
- 2월 13일 오후 2시 ~ 4시 교육관 3A

● 사목협의회 회원 연수
- 일 시 : 2022. 2. 18 (금) ~ 2. 19 (토)
- 장 소 : 뉴튼 수도원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1월 10일부터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교리	주일 10:30am – 교육관 3 A

[단체모임 안내] : 개방일은 추후 공지합니다. 방배정 먼저 확인하세요.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프란치스 룸
'신명' 풍물패	둘째, 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am~13:3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	교육관 2E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25주년 기도문

(1997. 3. 2. ~ 2022. 3. 6.)

좋은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하나 되도록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향해 걸어온
맨하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 공동체가 설립
25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 (시편 127)는 말씀처럼,
지금 저희 공동체가 현존하고 있음은
당신의 은총 덕분임을 고백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하오니, 공동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애써 온
모든 형제들, 자매들, 수도자들과 사제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
당신 나라 건설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당신 눈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소서.
또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마태 5,13-14) 계속하여
당신의 좋으심을 증거 할 한인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늘 "감사하는 마음"과 "나눔과 함께 하는 정신"으로
"당신 안에 하나 되게"하시며,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을 본받아,
가는 곳마다 당신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이정주(소화데레사) 김동희(헬레나)
김용기(요셉) 지군자(스테파니)
정창동(폴리나) 진정은(마리아)
고종호(마태오) 이진자(세실리아)
이병국 (요한)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2022년 2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의 사명과 용기에 감사하며, 우리 시대의 도전들에 대한 새로운 응답들을 끊임없이 찾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NEW WONJO 원조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16,17.20-26)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의 복음은 '참행복', '불행선언' 이야기입니다. 루카는 행복과 불행을 대칭적 구조로 편집하여 복음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 . .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과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과 지금 웃는 사람들, 현세와 미래의 행복과 불행이 역전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독서 예레미야서는 '속이는 자와 속이지 않는 자'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복과 저주를 대칭적 구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저주 받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스러질 몸을 체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하느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 . . . 가문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이 이야기가 루카의 메시지를 이해할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두는 태도와 '주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는 현세의 태도가 미래의 행.불행을 결정합니다. 지금 가난하면서도 하느님께 신뢰를 두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불행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부자라 해도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있다면, 미래에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오가 전하는 '행복선언'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 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오와 루카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오는 '산'에서 가르치신 이야기를 썼지만 루카는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가르치신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오가 '산', 높은 곳을 표현하며 영성적 의미를 부각시켰다면 루카는 '평지', '지금-여기서'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독서 코린토 1서는 '죽은이들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바오로는 죽은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말했습니다. '죽은이들의 맏물'이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있고, '현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세에서 이미' 미래의 희망을 가지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느님께 신뢰를 두기로 결정하고 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에 참 불행할 것입니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

'판에 박힌 삶의 위험성'

매일 변함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두고 시계 같다 혹은 한결 같다고 칭찬을 합니다. 심지어 자식들에게 저런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변덕스럽다는 등 끈기가 없다는 등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계가 아니엇, 이런 삶은 위험성을 갖습니다.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끔 집필하러 수도원을 찾습니다. 머리서 보면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의 삶은 단조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매일 같은 생활을 하다보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착각마져 듭니다. 이렇게 시간이 정지한 느낌이 들 때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처음에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느긋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짜증이 올라옵니다. 나중에는 기도문도 생활도 지겨운 기분마저 듭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본인을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배불러서 하는 생각이냐부터 시작해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렇다고까지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변화입니다. 작더라도 변화라는 자극을 주면 짜증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망상도 사라집니다. 같은 책을 보는 게 지겨우면 다른 책을 보고, 사는 곳이 지겨우면 바람 쐬러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강박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변화를 세속적인 것이라 정죄하며 스스로를 더 가두는 자기학대를 자행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스스로 영신수련은 마음으로 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꼰대 유머입니다. 본당 수녀가 마음에 안 들어 늘 타박하는 본당 신부가 있었습니다. '수녀님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수녀는 화가 났지만 수도자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앞으로 더 잘 할께요~"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한 술 더 떠 "그 이야기는 벌써 스무 번 넘게 들었어요!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기! "하며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가정 방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성질이 급해서 무단횡단을 하려다 차에 치일 뻔 했습니다. 운전자가 창을 열더니 "야! 이 멍청한 놈아! 죽으려고 환장했나?"라고 빽 소리치고는 그냥 내뺐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신부에게 뜬금없이 수녀가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신부가 모른 사람이라고 하자, 수녀는 "근데 신부님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잘 알까요? "하곤 휑하니 앞서 갔습니다. 그 신부는 제자리에서 두 번이나 똥물을 뒤집어 썼습니다.